

朝鮮朝 經筵에서 顯宗의 讀書歷 考察*

A Study on the Hyeonjong'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 of Joseon Dynasty

金重權 (Kim, Joong-gwon)**

◁ 목 차 ▷

- | | |
|----------------|-----------|
| 1. 緒言 | 4. 讀書沮害要因 |
| 2. 經筵制度 및 讀書日程 | 5. 結言 |
| 3. 讀書回數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18대 왕 顯宗의 독서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實錄을 통해 재위 15년간 그의 독서행태를 일정별로 살펴보았다. 현종은 효종이 승하하자 18세에 왕위에 올라 모든 제도를 재정비한 뒤 경연제도에 따라 독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3강은 실시하지 못하고 간간히 주강과 소대에 치중하였다. 현종은 재위기간이 부왕보다 5년이나 더 길지만 독서력은 아주 저조하였다. 재위 15년간 읽었던 책은 『中庸』, 『大學衍義』, 『通鑑』, 『心經』, 『綱目』 등 5책이 전부였다. 그러나 모두 완독하지 못했다. 독서회수는 조강 1, 주강 26, 석강 3회, 소대 33회로 나타났다. 재위 10년 이후부터는 3강을 실시하지 않고 소대만 실시하였다. 그 원인은 국내문제도 있었으나 그 보다 더 큰 원인은 현종 본인의 안질과 잦은 질병으로 인해 독서의욕이 상실된 것이다. 따라서 현종의 독서력은 부왕인 효종보다 더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다.

要語: 綱目, 經筵, 大學衍義, 中庸, 心經, 通鑑, 顯宗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yeonjong'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經筵) of Joseon Dynasty. To investigate the Silrog (the book which records the history of Korea), it knew the reading material, a reading act and attitude which he read in the Crown prince time.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The reading materials that he read for 15years were 5 titles, that is, *Jungyong*(中庸), *Daehagyeonui*(大學衍義), *Tonggam*(通鑑), *Simgyeon*(心經) and *Kangmog*(綱目) etc...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Jogang's reading discussion was 1, and the Jugang(晝講) was 26, Seoggang(夕講) was 3, and Sodae(召對) was 32.

He was the king who disliked reading, from 1659 to 1674, when he was in power, moreover he was not almost presented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Gyeongyeon(經筵) at the end of seizure of power.

As a result, Hyeonjong's reading career was much lower than the Hyojong's reading career.

Key words: *Kangmog*(綱目), Gyeongyeon(經筵), *Daehagyeonui*(大學衍義), *Jungyong*(中庸), *Simgyeon*(心經), *Tonggam*(通鑑)

* 본 논문은 2017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교수(jkkim@gwangju.ac.kr)

접수일: 2017년 5월 29일 최초심사일: 2017년 6월 19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20일

1. 緒言

현종(1641-1674)은 인조 19년(1641) 효종(당시 봉림대군)이 仁宣王后 張氏와 중국 심양에 볼모로 있을 때 태어났다. 이름은 柵, 자는 景直이며, 유일하게 외국에서 출생한 왕으로 4세에 입국하였다. 그의 나이 11세인 효종 2년(1651)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領敦寧府事 淸風府院君 金佑明의 딸(明聖王后)과 결혼하였다. 1659년 5월 효종이 죽자 18세 때 <仁政殿>에서 조선 제18대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재위하자마자 禮訟問題로 남인(영남학과; 허목, 윤휴, 윤선도)과 서인(기호학과; 송시열, 송준길)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서인은 효종이 차남인 관계로 대왕대비에게 壽年服(1년), 남인은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三年服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논쟁은 지방까지 확대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나 현종이 1년 상으로 결정하여 무마되었다. 1673년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죽음으로 인해 다시 大功說(9개월 복상)과 壽年說(1년복상)의 논란이 재기되었다. 남인은 기년설(허적), 서인은 효종과 같은 처지라하여 대공설(송시열)을 주장하였다. 이 때는 현종이 남인의 주장을 따랐다. 이로 인해 서인이 실각되고 남인이 득세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종은 북벌계획 중지, 대동법 확대실시와 현종 9년(1668) 金佑明(1616-1671)에게 대자 66,100자와 소자 46,000여자인 무신자(사주갑인자)를 주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많은 책을 인쇄하여 중외에 반포하고, 成均館에 校正廳을 설치하여 경서의 잘못된 字劃과 音義를 일체 모두 바로잡아 여러 학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문교에 상당히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가뭄과 기근이 전국적으로 계속되어 백성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다. 현종 자신부터 음식 수를 줄이고, 관리는 봉급을 인하하고, 금주령과 대동법을 확대하여 국가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종은 경연에서 문신들과 함께 얼마나 독서를 열심히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의 세자시절에는 『小學』, 『孝經』, 『論語』, 『孟子』, 『大學』 등을 독파할 정도로 독서를 좋아하고 기억력이 뛰어나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잊지 않았다고 한다. 실례로 『孟子』 7편을 효종이 시험해 보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이 모두 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¹⁾ 그러나 이 처럼 어렸을 때 독서를 좋아한 현종이 재위 후 15년 동안 왕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책으로 어떻게 독서했는지 확실하게 조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록을 중심으로 현종이 경연에서 읽었던 책과 도움을 준 경연관, 독서의 행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그의 독서이력을 밝혀보고자 한다.

2. 經筵制度 및 讀書日程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 효종 때부터 독서토론자였던 송준길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등을 일러주기 시작하였다. 건강문제, 대신 및 재신들과의 소통, 국가의 기강확립, 賢人 발탁, 장례의례

1) 『顯宗實錄』 顯宗大王 行狀 冊37. p.81.

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장례의 의례를 위해 宣祖 때부터 실시한 『禮記』의 <喪禮篇>을 읽도록 권의하였다. 어느 정도 제도가 정비되고 안정이 된 후 경연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경연을 시작한 시기로 보면 선왕들의 경우 졸곡 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현종은 즉위년(1659) 6월 11일 이전부터 경연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²⁾ 6월 12일 우의정 洪汝河(1620-1674)가 宋時烈(1607-1689)의 체직문제로 상소하는 내용에서 11일 경연을 실시했다는 근거가 기재되어 있다. 아마 이 때는 부왕의 장례절차와 예절을 익히기 위해 『禮記』의 <喪禮篇>을 읽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종은 8월초부터 9월 초까지 1개월여 동안 위장병에 시달린 까닭에 제대로 경연을 실시하지 못했다. 경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은 10월 28일 대행대왕 발인을 마친 후 11월 23일이었다. 22일에 승정원의 권의로 23일 주강을 열기로 결정하였으며, 경연제도는 선왕 때 실시한 제도를 따르기로 하였다. 경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경연관외에 무관 堂上 1명,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도 한 사람씩 교대로 입시하도록 하였다. 專經文臣 등은 하루 먼저 落點하여 각자 전공하는 책을 가지고 강독에 참여하거나 혹 文義를 진달하도록 하였다.³⁾ 11월 23일 첫 날 주강을 실시하였으며, 독서장소는 夜對廳(齋殿)으로 정하였다. 그 곳에는 영상 鄭太和(1602-1673), 이조판서 宋浚吉(1606-1672) 등이 참여하여 『中庸』을 강독하면서 先賢의 피휘문제를 논의하였다. 당시 경연관의 수장은 兪槩(1607-1664)였다. 그는 인조의 묘호문제로 유배되었다가 宋浚吉, 宋時烈의 추천으로 풀려나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어 경연을 책임지게 되었다. 즉위년에는 자주 경연을 열지는 못했으며, 이듬해인 1년(1660)에도 생각날 경우에만 경연을 열어 독서하였다.

1년(1660) 1월 26일에 주강과 석강을 열어 송준길과 함께하였으며, 주강에는 『中庸』, 석강에는 송준길과 함께 『通鑑』을 읽었다.⁴⁾ 2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거의 경연을 열지 못했으며, 3월 역시 병세가 지속되어 소대 위주로 독서를 하게 되었다. 동년 3월 3일 현종이 스스로 병세가 완화되었으니 경연은 열지 못하더라도 召對만은 하고 싶다 하였다. 그리고 독서과목은 당시 읽고 있는 『中庸』은 강독하기 어렵다고 역사책으로 교체하여 읽고 싶다 하였다.⁵⁾ 현종의 부탁을 받은 홍문관에서는 이튿날인 4일에 『中庸』 대신 經과 史를 겸하고 있는 『大學衍義』로 교체하고, 석강에서는 읽고 있는 『通鑑』은 완독할 때까지 계속 읽기로 하였다.⁶⁾ 그러나 3월 경연은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하고, 13일 <興政堂>으로 영상 鄭太和, 좌참찬 宋浚吉, 좌승지 吳挺緯(1616-1692), 장령 許穆(1595-1682), 교리 李翊(?), 수찬 任翰伯(1605-1664) 등을 소대하여 『通鑑』을 읽고, 19일에는 좌참찬 宋浚吉, 우윤 權謨(1604-1672), 승지 朴世城(1621-1671), 대사간 李慶億(1620-1673), 시독관 李翊, 검토회 洪柱三(1621-1682) 그리고 사관도 입시하도록 하여 李翊과 함께 『大學衍義』 서문을 읽었으며, 다음 날인 20일에도 영상 鄭太和, 이조 판서 洪命夏(1607-1667), 좌참찬 宋浚吉, 좌윤 柳赫然(1616-1680), 우윤 權謨, 승지 李殷相

2) 『顯宗實錄』 顯宗. 即位年 6月 12日(辛丑) 卷1. 冊36. p.214.

3) 『顯宗改修實錄』 顯宗. 即位年 11月 22日(己卯) 卷2. 冊37. p.130.

4) 『顯宗改修實錄』 顯宗. 1年 1月 26日(壬午) 卷2. 冊37. p.139.

5) 『顯宗改修實錄』 顯宗. 1年 3月 3日(戊午) 卷2. 冊37. p.143.

6) 『顯宗實錄』 顯宗. 1年 3月 4日(己未) 卷2. 冊36. p.237.

(1617-1678), 장령 許穆, 시독관 李翊, 검토관 洪柱三, 공조 좌랑 이상 그리고 사관 등을 참석토록 하여 『大學衍義』를 읽었다. 이와 같이 3월엔 소대만 실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의 소대마저 실시하지 못했다.

11월에는 9일과 10일 <興政堂(편전)>으로 경연관들을 불러 『通鑑』 <隋文帝紀>를 시강관 沈世鼎(1610-?), 시독관 李敏叙(1633-1688) 등과 함께 읽었으며, 10일에는 현종이 다음 날(11일) 주장에서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11일에 <홍정당>에서 모처럼 주장을 열어 『通鑑』 <隋煬帝紀> 시독관 李敏叙, 金壽興(1626-1690)과 함께하였다. 다음 날 12일엔 경연관을 불러 시독관 金壽興, 검토관 金萬基(1633-1687), 승지 南龍翼(1628-1692)이 참여하여 『宋鑑』을 읽고 토론하였다. 당시의 내용을 보면,

현종이 초저녁에 입직 승지 남용익에게 승정원에 계류된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라고 하였다.

현종: (입시한 승지 남용익에게) 옥당과 정원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승지: 아주 가깝습니다.

현종: (주서에게) 나가서 옥당의 입직관원을 불러오라(옥당의 관원이 들어옴)

현종: (검토관 金萬基에게) 『宋鑑』을 내어오라

(이어 촛불을 밝히고 현종이 책을 펴서 강론을 듣고, 시독관 김수홍이 김만기와 빈갈아 가며 10여장씩 읽어 내려가다가 만기가 음을 잘못 붙였다고 사양하자)

현종: (남용익에게) 읽으라

남용익: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고 사양하자

현종: 이는 경연의 상례가 아니고 별례인데, 어찌 꼭 사양하는가

수홍: 송나라의 황제들은 대개가 훌륭하였으니 태조뿐만이 아닙니다.

현종: 송나라가 남쪽으로 건너온 뒤로는 나라 구실을 못하였으니 北宋과 비교하여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용익: 남쪽으로 건너온 뒤로 이 같았기 때문에 三代 이후 漢·唐이 가장 융성하였다고 일컫는 것입니다.

만기: (송 태조가 그의 祖考를 追祭한 일에 이르러서) 趙汝愚의 생각에는, 僖祖가 비록 시조이기는 하나 대수가 다하면 祧遷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태조를 동향의 위에 모시고자 한 것이고, 朱子가 이를 나무라면서 회조는 바로 시조이므로 周나라의 후직처럼 영원히 조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종: 唐 明宗이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빌어서 聖人을 낳기를 발원한 일은 그 마음이 지극히 공변되다 하겠다. 石敬瑭은 어떠한 군주인가?

수홍: 거란에게 땅을 바치고 犬羊에게 신하 노릇을 하였으니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현종: 杜 太后的 사적에는 어찌서 편한 말이 없는가?

수홍: 송나라 사람이 역사를 썼기 때문에 감히 편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宣仁帝의 高太后는 참으로 훌륭한 황후입니다.

현종: 송나라의 家法이 가장 정당했기 때문에 훌륭한 황후가 많았던 것이다.⁷⁾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현종이 나이는 어리지만 초창기에는 상당히 독서를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며칠 후 11월 16일엔 모처럼 조강과 석강을 모두 실시하였다. 장소는 <興政堂>이었으며,

7) 『顯宗改修實錄』 顯宗. 1年 11月 12日(癸亥) 卷4. 冊37. p.206.

책은 『通鑑』 <隋紀>편으로 시독관 李敏叙와 함께 하였다. 경연관 외에 참찬관으로는 부제학 俞檠(1607-1664)가 참여하였다. 조강은 이 날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다. 18, 21, 22일에는 주장과 석강을 『通鑑』 <唐高祖紀>로 시독관 金宇亨(1616-1694)과 함께하였으며, 23, 24일 주장과 석강에서는 시독관 金宇亨과 3월에 읽다가 중단한 『大學衍義』를 첫째 권부터 다시 시작하였다.⁸⁾ 12월에 경연을 중단하자 우참찬 송준길이 경연은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정사를 보는 여가에 책 읽고 고금의 일을 토론하고 정사를 논하도록 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였다.⁹⁾ 현종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은 했으나 허약한 몸은 따라주지 않고 날씨가 엄동설한이라 경연관을 불러 책읽기가 어려웠던 환경이었다. 계속해서 2년(1661) 1, 2, 3월까지 독서는 중단되었으며, 4월 18일(현종개수에는 17일)에 <興政堂>에서 주강을 열어 유계, 송준길, 수찬 김만균 등과 함께 『大學衍義』를 읽고 그 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였다.¹⁰⁾ 그 후 7월까지의 경연과 소대가 중단되었다. 윤7월 14일(현종실록에는 13일) 모처럼 <資政堂>에서 주강을 열어 『大學衍義』를 읽었다. 오랜만에 경연을 실시한 관계로 문신들 모두 기뻐하였는데, 다시 눈병이 나서 그마저 중단하고 말았다.¹¹⁾ 오랫동안 경연은 열지 못한 현종은 같은 해(1662) 6월 12일에 <熙政堂>(창덕궁 내의 건물)으로 승지 兪瑒(1614-1690), 옥당 金宇亨, 안후열(安後說; 1632-1664) 등을 소대하여 『大學衍義』를 읽고 太公望의 인물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¹²⁾ 4개월 정도 쉬다가 10월 29일 <熙政堂>으로 도승지 南龍翼, 교리 金萬基, 수찬 吳始壽(1632-1680), 장령 郭齊華(1625-1675) 등을 불러 『大學衍義』 <洪範> 끝 편을 읽었다. 그러나 그 후 4년(1663)에도 경연, 소대가 모두 없었다.

5년 2월 8일(개수에는 9일)에 <宣政殿>(창덕궁 내의 便殿)에서 오랜만에 주강을 열어 『大學衍義』 <踐阼篇>을 참찬관 이경역, 승지 김수홍, 특진관 홍중보 등과 함께하였으며, 동월 28일에는 <熙政堂>으로 장소를 옮겨 검토회관 洪萬容(1631-1692), 좌의정 元斗杓(1593-1664), 참찬관 吳挺緯(1616-1692) 등을 소대하여 『大學衍義』 제3편 <敬之章>을 읽고 토론하였다. 그리고 3월부터 8월까지 경연이나 소대는 없었다. 현종은 눈병 때문에 책을 읽지 못한 것으로 표현하지만 아무래도 구실로만 보인다. 눈병이 1년 6월부터 5년 9월까지 완치되지 못하고 계속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현종이 5년 9월 26일 <宣政殿>에서 주강을 개설하여 시독관 洪萬容, 검토회관 呂聖齊(1625-1691), 참찬관 金壽興, 지경연 洪重普(1612-1671) 등과 『大學衍義』를 읽고 토론한 뒤 다음과 같이 안질 때문에 책을 읽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물론 눈병이 5년 이상 계속된 것은 아니나 나왔다가 다시 재발하면 오래도록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8) 『顯宗實錄』 顯宗. 1年 11月23日(甲戌) 卷3. 冊36. p.286.
 9) 『顯宗實錄』 顯宗. 1年 12月 4日(乙酉) 卷3. 冊36. p.286.
 10) 『顯宗改修實錄』 顯宗. 2年 4月 18日(丁酉) 卷5. 冊37. p.223.
 11) 『顯宗改修實錄』 顯宗. 2年 윤7月 14日(辛卯) 卷6. 冊37. p.243.
 12) 『顯宗實錄』 顯宗. 3年 6月 12日(癸丑) 卷5. 冊36. p.335.

“내가 안질로 착실히 글을 볼 수 없어 『大學衍義』를 강독하게 하였던 것이다. 앞서 강독하던 『中庸』을 다 마치지 못하였으니 훗날에는 『中庸』을 강하고 『中庸』이 끝나면 『尙書』를 계속 강하라.”¹³⁾

위 글에서 현종은 ‘강독하던 『中庸』을 다 마치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즉위 후 『中庸』과 『通鑑』을 읽다가 1년 3월 3일부터 안질 때문에 『中庸』 대신 『大學衍義』로 교체한 일이 있었다. 중단한 『中庸』을 다시 읽겠다고 희망한 것이다.

그의 희망에 따라 동년 9월 28일 <宣政殿>에서 시독관 洪萬容과 『中庸』 2장을 읽고 질의응답하였다.¹⁴⁾ 며칠 쉬었다가 9월 30일 <宣政殿>에서 시독관 李程(?), 특진관 南老星(1603-1667) 등과 『中庸』 3장부터 5장까지 읽었다. 현종이 읽을 때 大文만 읽고 주석은 읽지 않자 南老星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南老星: 신이 일찍이 先朝에서 오랫동안 經筵에 출입하였습니다. 대체로 강연의 규칙은 상께서 전에 강한 대목이나 새로 강할 대목을 모두 주석까지 아울러 읽었는데, 지금은 상께서 다만 大文만 읽으시니, 이는 옛 관례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현종: 옛 규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안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¹⁵⁾

위의 내용은 현종이 큰 문장만 읽고 글자가 작은 주석을 읽지 않은 것은 안질로 인해 시력이 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현종은 『中庸』도 9월 28일과 30일 두 차례 읽고 중단하였다. 이를 볼 때 현종의 독서 취향이 <經>보다는 <史>를 더 좋아한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10월 28일 집의 李端相이 상소를 올리는 내용 중에,

“신이 삼가 들으니 전하께서 史學에 유의하고 經傳에 소홀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금 인주의 공통된 병통이나 만일 먼저 경전을 강독하여 본원을 다스려서 義利와 公私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비 득실과 치란 흥망의 연유를 판별하겠습니까.”¹⁶⁾

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20일간 휴식을 취한 뒤에 10월 21일 <養心閣; 창덕궁 별각>에서 주강을 열고 시독관 洪萬容과 함께 『通鑑』 <唐太宗紀>를 읽었다.¹⁷⁾ 동년 10월 28일 李端相이 상소를 올려 『心經』(송대 1234년, 진덕수 편찬)을 추천하였다. 『心經』은 마음의 공부로는 최고의 서적이므로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부왕인 효종은 말년에 틈만 나면 宋時烈, 宋浚吉 등을 불러 이 책을 읽고 강론하였다. 실록에 이 책은 李滉(1501-1570)이 처음 입수하여 직접 구두를 찍고 주석을 가한 책으로 효종이 ‘이 책을 얻고부터 마치 이황이 직접 좌우에 있는 것 같다.’고까지 하였다

13) 『顯宗實錄』 顯宗. 5年 9月 26日(甲寅) 卷9. 冊36. p.430.

14) 『顯宗改修實錄』 顯宗. 5年 9月 28日(丙辰) 卷11. 冊37. p.401.

15) 『顯宗改修實錄』 顯宗. 5年 9月 30日(戊午) 卷11. 冊37. p.401.

16) 『顯宗改修實錄』 顯宗. 5年 10月 28日(丙戌) 卷11. 冊37. p.409.

17) 『顯宗改修實錄』 顯宗. 5年 10月 21日(己卯) 卷11. 冊37. p.406.

고 기재되어 있다.¹⁸⁾ 그러나 『心經』을 이황이 처음 입수한 것은 아니다. 중종 36년(1541)에 중종이 『大學衍義』와 『心經』을 대대로 들여와 세자의 독서자료로 추천한 것으로 보면 이미 그 이전에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⁹⁾ 이와 같이 현종은 李端相으로부터 『心經』을 추천받았으나 다음 해 6년(1665) 4월까지 독서는 없었다.

6년 5월 29일 이경석이 李端相에 이어 『心經』과 『近思錄』을 추천하였다.²⁰⁾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을 추천 받은 현종은 6월 4일 경연관에게 『心經』을 강하도록 한 바 시독관이 글을 읽고 송준길이 해석하였다. 송준길이 해석을 마치고 현종에게 독서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당시 현종은 승지를 불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보고를 마친 뒤 곧바로 경연관에게 『心經』을 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송준길은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참으로 좋기는 하지만, 공사를 가지고 입시한 뒤에 강하는 것은 강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듯 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召對를 명하여 儒臣과 함께 강론하신다면 좋겠습니다.”하였다.²¹⁾ 송준길의 생각에 현종이 독서를 중요치 않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현종은 송준길의 건의에 따라 동년 6월 8일 진덕수의 <心經贊>과 <心學圖>를 교리 朴世堂이 읽고 송준길이 해석하였다. 6월 10일 경연관을 소대하여 독서한 후 7월까지 쉬었다가 8월 12일, 13일 <熙政堂>으로 경연관을 소대하여 『心經』을 조복양이 강하고, 송준길이 글의 뜻을 해설하였다.²²⁾

동월 18일에는 전부터 읽어 왔던 『通鑑』으로 교체하였다. <唐太宗紀>를 조복양이 강하고 역시 송준길이 글의 뜻을 설명하였다. 그 후 한동안 독서를 하지 않다가 9월 29일 회정당으로 경연관을 소대하였다. 조복양이 <唐太宗紀>를 읽고 현종은 의자에 앉아 듣고, 송준길은 글의 뜻을 설명하였다. <唐太宗紀>는 5년 10월에 읽었던 것인데 1년 후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이다. 이 처럼 현종은 한 책을 꾸준히 읽어서 완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바꾸어 가며 조금씩 읽곤 하였다. 그 이유를 송준길이 현종에게 직접 물었다.

“송준길: 지난번 강한 『心經』을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通鑑』을 강하게 하셨습니까?
 현종: 내가 눈병 때문에 직접 문자를 볼 수 없는데 역사를 기록한 책은 다른 서책과는 달라서 말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한 것이다.
 송준길: 역사책을 강한다고 해도 전혀 아무 것도 강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²³⁾

현종이 책을 자주 교체한 이유를 눈병 때문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사실 그는 역사책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동년 10월 30일에 또 다시 책을 바꾸어 『大學衍義』로 趙復陽(1609-1671)과 함께

18) 『顯宗改修實錄』 顯宗. 5年 10月 28日(丙戌) 卷11. 冊37. p.409.
 19) 『中宗實錄』 中宗. 36年 3月 23日(己酉) 卷94. 冊18. p.451.
 20) 『顯宗改修實錄』 顯宗. 6年 5月 29日(甲寅) 卷13. 冊37. p.450.
 21) 『顯宗實錄』 顯宗. 6年 6月 4日(己未) 卷10. 冊36. p.469.
 22) 『顯宗改修實錄』 顯宗. 6年 8月 12日(乙丑) 卷13. 冊37. p.457.
 23) 『顯宗實錄』 顯宗. 6年 9月 29日(壬子) 卷11. 冊36. p.483.

하였다. 『大學衍義』를 하루 읽고 그 해 11월, 12월 경연도 소대도 없었다.

7년(1666) 1월 19일 자신이 경연을 열겠다고 주장하여 20일, 21일 <宣政殿>에서 주장을 열고 부제학 조복양, 수산 吳斗寅(1624-1689) 등과 함께 잠시 중단했던 『心經』을 읽었다. 몇 개월동안 독서를 중단한 현종은 11월 3일과 5일에 주장과 소대를 개설하여 5년 9월에 중단한 『中庸』을 3일 주장에는 <宣政殿>에서 부응교 李敏迪(1625-1673)이 진강하고, 趙復陽이 글의 뜻을 해석한 뒤, 참여한 대신들과 열띤 토론을 하였다.²⁴⁾ 5일에는 장소를 <熙政堂>으로 옮겨 『中庸』을 가지고 수찬 尹深(1633-1692)이 진강하고 부제학 조복양이 뜻을 해석하였다. 한 달 이상 소대도 없다가 7년 12월 26일 경연관들을 <養心閣>으로 소대하여 시강관 이익 등과 『中庸』을 함께 읽었다.

8년(1667)에는 경연과 소대가 한 번도 실시되지 못했다. 9년(1668)에는 주장 8회와 소대 2회가 실시되었다. 10월 6일 송준길, 송시열을 만나고부터 그들의 건의에 따라 마지못해 10월 18일 송준길 등을 <養心閣>으로 불러 오랜만에 『心經』을 읽고 송준길에게 뜻을 해석하게 하였다. 이 날 찬선 송준길은 경연제개를 건의하였으며, 오랜만에 옥당에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하여 모두가 좋아했다고 한다.²⁵⁾ 동월 21일 송준길 등의 건의에 따라 <養心閣>에서 『心經』을 읽었으며, 동 22일에는 송시열을 영경연으로 제수하여 경연에 들도록 하였다. 동 25일에 <養心閣>에서 시독관 김만중, 송준길 등과 『心經』을, 다음 날 26일에는 송준길이 『心經』을 강하면서 현종과 ‘心’자와 ‘理氣說’ 그리고 ‘敬’의 의미에 대해 논하였다.²⁶⁾ 동 29, 30일에도 <養心閣>에서 경연을 열고 시강관 김만중, 영경연 송시열, 찬선 송준길, 李俊民, 정태화 등이 참여하여 『心經』을 읽고 논하였다. 11월의 경연은 4일, 16일 총 2일간 주장을 열었으며, 12월에도 7일, 16일 2일간 <養心閣>에서 주장을 열어 좌참찬 송준길 등과 함께하였다. 9년 10월 이후부터는 송준길, 송시열이 상경함으로 인해 현종과의 독서가 어는 해보다도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몸이 너무 허약해서 공식적인 경연은 자주 실시되지 못하였다. 12월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치료 받느라 독서에 등한시 하였다. 송시열이 『大學』를 추천하기도 했으나 읽지 못했다. 몸이 허약한 왕을 본 송시열은 울음을 삼키면서, 현종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임금의 병환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마는 전하같이 장성한 연세에 어찌 이리도 질병이 많으시단 말입니까. 조종의 중함을 생각지 않으시고, 만금 같은 몸을 가볍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²⁷⁾

송시열은 현종이 『大學』를 읽어 깨우치고 국가를 잘 운영하는데 효과적이므로 공부할 첫 번째라는 것인데 젊은 왕이 너무 병약하여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10년(1669)에는 독서했던 날이 1월, 4월, 5월에 그쳤다. 경연은 열지 않고, 소대만 실시하였다.

24) 『顯宗實錄』 顯宗. 7年 11月 3日(己卯) 卷13. 冊36. p.528.

25) 『顯宗實錄』 顯宗. 9年 10月 18日(癸未) 卷15. 冊36. p.594.

26) 『顯宗改修實錄』 顯宗. 9年 10月 26日(辛卯) 卷19. 冊37. p.628.

27) 『顯宗實錄』 顯宗. 9年 12月 19日(癸未) 卷15. 冊36. p.602.

경연을 개설할 경우 경연관 외에 대신들이 모두 참여하므로 몸이 불편한 현종은 경연개설을 꺼려하였다. 그래서 마음에 든 사람만 불러 독서하는 소대를 자주 했던 것이다. 동년 1월에는 4, 6, 8, 17일 4회 <養心閣>으로 소대하였는데, 부제학 李敏迪이 『心經』 音釋을 읽으며 글의 뜻을 강하였고, 판부사 송시열, 좌참찬 송준길이 번갈아가며 나머지 뜻을 강하였다. 17일 소대에서는 부제학 李敏迪, 송시열은 『心經』을 완독한 뒤에 고금의 치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通鑑綱目』만 한 책이 없다고 현종에게 추천하였다.²⁸⁾ 현종도 수락했으나 곧 바로 『通鑑綱目』을 읽지 못했다. 2월, 3월엔 그나마 소대마저도 중단되었다. 4월에야 25일, 27일 두 차례 <養心閣>으로 소대하여 『心經』 독서를 송준길 등과 함께하였다. 5월에는 15일, 16일, 18일 3회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대가 있었으며, 송준길, 시독관 김만중 등이 『心經』을 강론했다. 그 후 『心經』을 읽었다는 근거가 없다.

11년(1670)에는 11월 11일 하루만 소대한 것으로 실록에 기재되어 있다. 시독관 金錫胄가 <養心閣>에서 『綱目』을 강독한 뒤 당시 참석자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시독관 金錫胄: 소대를 아주 오랜 만에 하였으니, 못사람들이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綱目』은 너무나 분량이 많아 끝까지 마치기가 어려운데, 만약 중간에 뛰엄뛰엄 하게 되면 공부를 마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강연을 열어 늘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만 역대의 治亂을 조감할 수가 있습니다.

홍중보: 소대는 조강이나 주강과는 달라서 편전에 나아가 수시로 진강을 하는 것입니다. 비국을 인견하는 날에 먼저 진강을 하게 하여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서필원: 외방 사람들이 소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천한 아랫사람들까지도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여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께서 만약 이번부터 시작하여 폐하지 않고 자주 소대하여 강론하신다면 또한 여론의 사정을 알 수가 있을 것이며 정치를 하는 데에도 어찌 도움 됨이 적겠습니까.”²⁹⁾

그러나 이들의 말은 헛되고 말았다. 그 후 경연도, 소대도 없었다. 결국 현종 때의 경연청은 쓸모없는 곳이 되었다. 13년(1672) 2월 24에 金壽興을 知經筵으로 관직을 제수하자 사신은 당시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때(관직을 제수할 때) 상이 항상 조용히 요양하고 있는 중이어서 경연에 나오지 않은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그래서 경연청은 하나의 쓸모없는 한산한 곳이 되었고 그 관원도 인원수만 채워 놓을 뿐이었다. 壽興 역시 문학하는 선비가 아닌데 의례적으로 이 직임에 제수되었고, 옥당의 儒臣 가운데는 왕왕 銀과 根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³⁰⁾

즉, 당시의 홍문관은 유명무실했으며, 그 곳에 배정받은 경연관은 실력유무에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종은 체계적인 독서는 어려웠으며, 독서한다 해도 부르는 인물이

28) 『顯宗實錄』 顯宗. 10年 1月 17日(辛亥) 卷16. 冊36. p.608.

29) 『顯宗改修實錄』 顯宗. 11年 11月 11日(甲子) 卷23. 冊38. p.39.

30) 『顯宗實錄』 顯宗. 13年 2月 24日(庚子) 卷20. 冊37. p.11.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말년에 주로 송준길, 송시열이 독서동반자가 되었으나 13년(1672) 12월 5일 송준길이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더욱더 독서의욕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³¹⁾ 현종은 다음 해인 14년(1673) 2월 27일에 경연관을 소대하여 『綱目』을 시독관 金萬重(1637-1692)과 함께 한 것이 마지막이 되었다.

당시 홍문관의 수장이며, 경연을 책임진 부제학은 년도별로 보면, 즉위년부터 1년 8월까지는 兪棨, 1년 9월에는 金守恒, 11월 다시 兪棨, 3년 4월 趙復陽, 4년 6월 李慶徽, 4년 9월 兪棨, 5년 2월 李慶億, 7월 李慶徽, 9월 이경억, 6년 6월 趙復陽, 7년 5월 이경억, 11월 趙復陽, 8년 4월 閔維重, 6월 洪處亮, 8월 曹漢英, 9월 閔鼎重, 9년 1월 閔鼎重, 2월 趙復陽, 4월 이경휘, 10월 李敏迪, 10년 3월 李端相, 7월 金萬基, 9월 李敏迪, 11년 6월 金萬基, 11월 李敏迪, 12년 7월 李敏迪, 13년 3월 金萬基, 15년 2월 李端夏 등이었다. 임기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정도로 수시로 교체되었으며, 재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으로 현종의 在位時 독서행태를 살펴보았다. 그가 재위 초년에 경연제도를 재정비하고 즉위년 11월 23일 주강에서 『中庸』으로 시작하고, 1년 3월초에 주강에서는 『大學衍義』, 석강에서는 역사책 『通鑑』으로 교체하였다. 5년 9월 26일까지 『大學衍義』를 읽고 주로 『通鑑』에 집중 독서하였다. 『通鑑』은 6년 9월까지 읽었다. 5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읽다가 중단한 『中庸』을 읽었으며, 6년 5월 이경석의 추천으로 송준길 등과 『心經』을 읽기 시작하여 10년 5월까지 하였다. 6년 10월 30일 하루 『大學衍義』를 읽었으며, 11년 11월부터는 『綱目』을 14년까지 읽었으나 기록상으로는 11년 11월 11일, 14년 2월 27일이 전부다. 독서장소로는 즉위년 夜對廳(齋殿), 1년 興政堂, 2년에는 資政殿, 熙政堂, 5년 宣政殿, 熙政堂, 養心閣, 6년 熙政堂, 7년 宣政殿, 養心閣, 9년 養心閣, 10년 養心閣 등이었다.

3. 讀書回數

현종의 경우 재위기간 3강 중 조강은 재위1년 11월 16일에 1회밖에 없었으며, 석강의 경우도 1년 1월 26일과 11월 16일, 18일 총 3회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주강과 소대를 대상으로 독서회수를 밝혀보고자 한다.

3.1 晝講

현종은 경연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재위 15년간 주강의 회수는 조사결과 총 26회로 나타났다.

31) 『顯宗改修實錄』 顯宗. 13年 12月 5日(丙午) 卷26. 冊38. p.130.

<표 1>에서 보듯이 즉위년 11월 1회, 1년 1월 1회, 11월 6회로 총 7회, 2년 4월 1회, 윤7월 1회, 3년과 4년은 0, 5년 5회, 6년 0, 7년 3회, 8년 0, 9년 8회가 마지막이었으며, 그 이후 15년까지 주장은 없었다. 이 중 가장 많이 독서한해는 1년과 9년이며, 월별로는 10월 11월이 그래도 얼마 되진 않지만 5회와 10회로 나타났다. 주장과목은 『中庸』, 『大學衍義』, 『通鑑』 등이었다.

<表 1> 書講年月別回數

年度 \ 月	1	2	3	4	5	6	7 (윤)	8	9	10	11	12	計	累計
즉위	-	-	-	-	0	0	0	0	0	0	1	0	1	1
1	1	0	0	0	0	0	0	0	0	0	6	0	7	8
2	0	0	0	1	0	0	(1)	0	0	0	0	0	2	10
3	0	0	0	0	0		0	0	0	0	0	0	0	1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5	0	1	0	0	0	0	0	0	3	1	0	0	5	15
6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7	2	0	0	0	0	0	0	0	0	0	1	0	3	18
8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9	0	0	0	0	0	0	0	0	0	4	2	2	8	26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26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26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26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26
14	0	0	0	0	0	0	0	0	0	0	0	0	0	26
15	0	0	0	0	0	0	0							26
총회수	3	1	0	1	0	0	(1)	0	3	5	10	2		26

3.2 召對

현종은 재위 15년간 소대를 년도별로 보면 1년 3월 3회, 11월 3회로 총 6회, 2년 0, 3년 6월 1회, 10월 1회 총2회, 4년 0, 5년 2월 1회, 6년 6월 3회, 8월 3회, 9월 1회, 10월 1회로 총 8회, 7년은 11월과 12월 각각 1회, 8년 0, 9년 10월 2회, 10년은 1월 4회, 4월 2회, 5월 3회로 총 9회, 11년 11월 1회, 12년 0, 13년 0, 14년 2월 1회 등 총 32회로 나타났다. 소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년도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즉위년, 2년, 4년, 8년, 12년, 13년, 15년이다.

읽은 책은 『通鑑』, 『大學衍義』, 『心經』, 『中庸』, 『綱目』 등이었다. 『心經』의 경우는 6년부터 10년까지 몇 회 되진 않지만 주로 송준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 『綱目』은 11년부터 14년까지 총 2회만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 종수는 5종인데 끝까지 완독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읽다가 세상을 마치게 된 불운한 왕이었다.

<表 2> 召對年月別回數

年度 \ 月	1	2	3	4	5	6	7 (윤)	8	9	10	11	12	計	累計
즉위	-	-	-	-	0	0	0	0	0	0	0	0	0	0
1	0	0	3	0	0	0	0	0	0	0	3	0	6	6
2	0	0	0	0	0	0	0	0	0	0	0	0	0	6
3	0	0	0	0	0	1	0	0	0	1	0	0	2	8
4	0	0	0	0	0	0	0	0	0	0	0	0	0	8
5	0	1	0	0	0	0	0	0	0	0	0	0	1	9
6	0	0	0	0	0	3	0	3	1	1	0	0	8	17
7	0	0	0	0	0	0	0	0	0	0	1	1	2	19
8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9	0	0	0	0	0	0	0	0	0	2	0	0	2	21
10	4	0	0	2	3	0	0	0	0	0	0	0	9	30
11	0	0	0	0	0	0	0	0	0	0	1	0	1	31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31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31
14	0	1	0	0	0	0	0	0	0	0	0	0	1	32
15	0	0	0	0	0	0	0						0	32
총회수	4	2	3	2	3	4	0	3	1	4	5	1		

4. 讀書沮害要因

실록의 기록에 “현종은 학문에 마음을 두어 의리를 강구하고, 질병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경연에 나갔다. 또 전대의 역사를 강구하기를 좋아하여, 그 임금의 修德 여부와 정치의 득실, 민생의 고락에 대해 부지런히 토론하여 거울로 삼았다. 견해가 고명하여 항상 講官의 견해보다 뛰어났다.”³²⁾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현종의 독서력은 아주 저조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본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종 1년엔 주장 7회, 소대 6회로 거의 독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보면 1년 4월에 윤선도 유배건(예론문제로 서인과 맞서다 현 함경남도 삼수군에 유배됨, 2년에 북청으로 옮김)이 있었으며, 6월엔 눈병으로 침을 맞거나 머리에 종기가 나서 땀을 뜨기도 한 것으로 보면 면역력이 계속 약해진 것 같다. 7월엔 얼굴과 목부분에 붉은 부분이 남아 있는 등으로 인해 대신들을 피하고, 편전인 <홍정당>에 의관 외에는 모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³³⁾ 같은 해 8월, 9월, 10까지 땀과 침을 계속시도 했으나 눈병이 낫지 않았다. 당시 기근까지 계속되어 자살한 사람까지 나올 정도였다(당시 전남 담양 이정일이란 자가 굶주림에 견디지 못해 목매어 죽음).

32) 『顯宗實錄』 顯宗大王行狀. 卷1. 冊37. p.81.

33) 『顯宗改修實錄』 顯宗. 1年 7月 23日(丙子) 卷4. 冊37. p.186.

현종 2년(1661)에는 주장 2회 석강과 소대는 한 번도 없었다. 5월, 6월, 7월, 윤7, 8월엔 개인적으로는 눈병, 허벅지에 종기 등으로 뜸과 침을 맞으며 생활하였으며, 구가적으로는 전국적인 기근으로 구휼정책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인 문제로 보인다. 2년 5월 26일 송시열을 불러 예론문제로 인해 윤선도와 조경의 상소에 대해 논의하면서 송시열과 같이 울었다는 기록이 있다.³⁴⁾ 이는 현종이 예론문제의 사후 처리에 고민이 많았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현종이 책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월에는 그 동안 경연에서 선왕 때부터 독서와 정책관련 친구가 되어준 송준길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낙향하였다(12월에 다시 대사헌 직책을 줌).³⁵⁾ 8, 9, 10, 11, 12월까지 경연에서의 독서 활동은 없었다. 그 이유가 8월에 원자탄 생으로 기쁨의 잔치 속에 독서의 기회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12월에는 선왕 때부터 독서친구였던 송시열이 사직하여 독서의 부담이 줄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정확한 사유는 3년(1662) 5월 13일 정언 李端夏 등이 경연을 실시해야 한다는 건의 내용 중에 나타나고 있다.

“李端夏: 경연을 정지하고 있는 것이 상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이지만 많은 신하들이 걱정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때때로 臥內에서 儒臣들을 불러놓고 經史를 윤독하고, 陸賈가 앞에서 시서를 강론했던 것처럼 경사의 文義를 강론케 한다면, 어찌 성덕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신으로 하여금 빨리 아뢰어 정하게 하소서.

현종: 병세를 보아가며 할 일이지 어찌 별도로 명목을 만들겠는가.”³⁶⁾

이 내용으로 보면 현종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독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안질로 보인다. 동년 8월 21일 南龍翼이 아뢰는 내용에 “안질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신 탓으로 經筵을 오랫동안 정지하였으니, 능에 참배하시고 나서는 곧바로 경연을 여셔야 할 것입니다.”³⁷⁾란 기록을 보면 눈병이 확실하다. 그러나 閔鼎重이 9월 5일 현종에게 아뢰는 내용을 보면 눈병 때문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현종: 그대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민정중: 성상께서 건강이 좋지 못하시다가 이제 다행히 조금 나으셔서 능에 참배하는 일과 闕武하는 일을 차례로 거행하게 되었는데, 유독 經筵만은 오래도록 폐지하신 채 인접하시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신이 삼가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人主가 마음을 태만히 갖고 소홀히 하는 것이야말로 亂亡으로 이끌어지는 조짐입니다. 그 동안의 일을 보건대 ‘어진 선비를 접견하는 때는 드물고 환관이나 宮妾을 가까이 하는 날이 많다.’고 경계한 말에 가깝지 않습니다.

현종: 안질에는 글을 보는 것이 가장 해롭기 때문에 冊上 공부 중단됨을 면치 못하였는데, 이 점을 나도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제는 조금 나아진 듯하니 앞으로 경연을 열려고 한다. 그런데 지난번 그대들이 청대했을 때는 한창 이불을 덮고 땀을 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인견을 할 수 없어 所懷를 晝啓토록 했던 것이다.

34) 『顯宗實錄』 顯宗. 2年 5月 26日(甲戌) 卷4. 冊36. p.301.

35) 『顯宗實錄』 顯宗. 2年 7月 17日(甲子) 卷4. 冊36. p.304.

36) 『顯宗改修實錄』 顯宗. 3年 5月 13日(乙酉) 卷7. 冊37. p.271.

37) 『顯宗實錄』 顯宗. 3年 8月 21日(辛酉) 卷5. 冊36. p.343.

민정중: 경연을 열 수 없다 하더라도 儒臣으로 하여금 읽게 하고 들으신다면 어찌 조금이나마 보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가 듣자니 때때로 後苑에서 말(馬)을 조련하시고 작은 표적에 활을 쏘곤 하셨다 합니다. 거리에 나도는 이야기를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현종: 설령 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력이 감당치 못했을 것이다.”³⁸⁾

눈병은 책상 앞에 앉자 글을 읽는 것이 가장 해롭기 때문에 눈병을 구실 삼아 말도 타고 활쏘기 하면서 보냈던 것이다. 눈으로 글을 읽지 못하면 읽어주는 내용을 듣기라도 해야 한다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동년 9월 20일 장령 朴世堅이 현종을 <회정당>에서 만나 아뢰는 내용을 보면,

“세건: 경연을 오래도록 폐지하니 신하들이 민망히 여깁니다. 지금 교외에 거둥까지 하시면서 경연만은 열지 않으니, 성상이 계속 병환 중에 계셨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현종: 전일에는 眼疾이 매우 심하여 글자를 보는 데에 방해가 되었고, 지금은 喘息의 증세가 있어 대화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연을 열지 못하는 것이다.”³⁹⁾

눈병이 좀 나으려고 하니까 천식이 와서 독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후 계속된 대사간 閔鼎重, 부응교 南九萬, 교리 李敏叙, 부교리 金萬基 등 문신들의 건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며, 10월 23일 교리 李敏叙가 다시 아뢰는 내용을 보면,

“이민서: 성상께서 즉위한 초기에는 자주 경연을 열고 儒臣을 인접하셨으므로 중외에서 목을 빼고 좋은 시대를 만났다고 기뻐하였는데 몇 해 전부터 이유 없이 강독을 폐지하셨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심상한 引對도 드물게 해 주시니, 이르고서도 성상의 학문이 이루어지고 나라의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현종: 요즘 경연을 정지한 지 오래되었는데, 나의 마음이 또한 어찌 편안하겠는가. 다만 안질이 심하여 글자를 보기가 어려웠고, 게다가 감기가 들어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아 경연을 열지 못하였다. 병세가 조금 낫기만 한다면, 인접하고 강론을 듣는 것이 뭐가 괴롭다고 하지 않겠는가.”⁴⁰⁾

안질과 감기가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게다가 의욕마저 상실되어 책을 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년(1663)에는 경연(조강, 주강, 석강)과 소대가 한 번도 없었으며, 5년(1664)에는 주강 5회, 소대 1회를 실시하였다. 6년(1665)에도 경연은 없었으며, 소대만 8회를 실시하였다. 그 원인은 눈병이 재발하여 독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동년 5월 1일 현종은 눈병을 고쳐보고자 온천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송준길을 만나 얘기한 내용에,

“눈병이 지난 초봄부터 더욱 심해졌는데 醫官들의 의술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근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습열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고는 혹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때 아닌

38) 『顯宗實錄』 顯宗. 3年 9月 5日(乙亥) 卷6. 冊36. p.345.

39) 『顯宗改修實錄』 顯宗. 3年 9月 20日(庚寅) 卷7. 冊37. p.288.

40) 『顯宗改修實錄』 顯宗. 3年 10月 23日(癸亥) 卷7. 冊37. p.293.

거동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듣자니 경이 살고 있는 곳이 멀지 않다고 하기에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그대를 만났으니 나의 기쁨이 어떠하겠는가.”⁴¹⁾

위의 내용과 5월 7일 송시열과의 대화중에서도, “초봄부터 눈병이 더욱 심해져서 부득이 이번 거동을 하였던 것인데, 목욕을 한 뒤로 날마다 조금씩 효험이 있다.”⁴²⁾ 라는 내용에서 독서를 하지 못한 사유를 알 수 있다.

7년(1666)에는 주장 3회, 소대 2회가 실시되었는데, 역시 온천에 다녀와서도 독서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응교 李敏敍와 수찬 金錫胄가 현종을 만나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敏敍: 兩殿께서 온천에서 목욕하시고 쾌차하는 효험을 보셨으니, 신민에게 이보다 더 큰 다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연을 폐한 것이 전적으로 병환 때문이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평상대로 회복하셨으니, 일기가 맑은 때에 자주 경연에 참석하신다면 크나큰 다행이겠습니다.
錫胄: 양전께서 온천의 효험을 보신 뒤로 대소 신민은 경연을 열어 강학하시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종: 召對하는 규례대로 강독하고 듣는다면 편리할 듯하다.”⁴³⁾

7년 8월 9일 부응교 金萬均, 부교리 洪萬容, 수찬 尹深이 현종을 만나 경연에 나가 열심히 독서할 것을 권하자 현종이 답변하기를,

“가뭇이 이처럼 심하여 백성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절박한 근심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경연을 열어 신하를 접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나, 눈병이 수시로 발작하여 신하들의 소망을 저버리고 있으니 진실로 한탄스럽다.”⁴⁴⁾

위의 글에서 독서를 하지 못한 원인이 계속해서 고질적인 눈병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신들은 현종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종과 합의를 하게 된다. 같은 해 8월 23일 승지 김만기와 교리 남이성이 현종과의 대화를 보면,

“신등이 삼가 문종 대왕의 행장을 보건대, 안질로 인하여 대신이 경연을 열지 말도록 청하였는데도 윤택하지 않으셨으니,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지금 성상께서 비록 환후가 있으시더라도 先祖의 고사를 본받아 침실 안으로 유신을 불러 들여 수시로 진강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종: 召對라면 경연과는 차이가 있으니, 비록 친히 스스로 읽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만기: 일찍이 승지가 공사를 가지고 임시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별 일이 없는 날에는 취품하게 하되 옥당으로 하여금 동참하여 진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종: 승낙했다.”⁴⁵⁾

41) 『顯宗實錄』 顯宗. 6年 5月 1日(丙戌) 卷10. 冊36. p.463.
42) 『顯宗實錄』 顯宗. 6年 5月 7日(壬辰) 卷10. 冊36. p.464.
43) 『顯宗實錄』 顯宗. 7年 5月 6日(丙戌) 卷12. 冊36. p.517.
44) 『顯宗實錄』 顯宗. 7年 8月 9日(丁巳) 卷12. 冊36. p.524.
45) 『顯宗實錄』 顯宗. 7年 8月 23日(辛未) 卷12. 冊36. p.525.

지난 해 6월에 승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연관에게 진강하도록 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송준길에게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종이 너무 눈병을 구실삼아 독서를 꺼려하니 승지가 업무 보고하는 날에 경연관을 참여시켜 독서토록 합의를 본 것이다.⁴⁶⁾ 독서방법은 현종이 직접 읽지 않고 경연관이 代讀하고 현종은 귀로 듣는 耳讀 형식을 취한 것이다. 합의는 했으나 10월까지 독서했다는 근거는 없다. 이와 같이 소대만 하고 공식적인 경연은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문신들은 계속해서 경연실시문제를 거론하곤 하였다. 이 날 부제학 조복양이 경연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상소내용을 보면,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건강이 자주 좋지 않아 경연을 거의 폐지하다시피 했는데, 성명께서도 필시 여의치 않다고 탄식하셨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혼자 계시는 곳에서나 한가하실 때 무슨 일에 유의하고 계신지 신이 감히 모릅니다마는, 근일 여염에 떠도는 말에 ‘종실과 부마들이 제한이 없이 금중을 드나들면서 항상 활쏘기와 같은 일로 좌우에 가까이 모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후략)”⁴⁷⁾

위의 내용은 경연에 나가지 않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첫째 이유였으나, 건강이 좋은 때는 친족과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 처럼 자주 대신들이나 홍문관관리들이 독서를 권장해도 현종은 말로만 그러자 해놓고 실제로는 실천을 하지 못하는 왕이었다. 경연을 열자하면 경연이나 소대를 청하는 것이 형식적이어서 하지 않는다는 의도도 보였다고 한다. 8년(1667) 7월 15일 경연관인 남이성이 그 소문을 듣고 진위여부를 현종에게 묻는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이성: 엇그제 경연 석상에서 중신이 ‘경연을 열고 소대하기를 청하는 것이 모두 형식적인 말이다.’고 하였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현종: 말하는 사이에 점차 이렇게 된 것으로 경연을 열고 소대하기를 청하는 것이 형식적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남이성: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⁴⁸⁾

그래도 경연을 실시하지 않자 남이성이 동년 9월 18일 경연의 재개를 청한 상소를 올렸다.⁴⁹⁾ 남이성이 말한 내용은 문종의 경우 눈병이 있었는데도 날마다 경연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대신들이 격일로 하자해도 ‘나는 성질이 글을 좋아하여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는 고사를 들려주었다. 즉, 눈병을 구실로 삼지 말고 경연에 나와서 독서하시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현종이 여러 가지 구실로 독서를 꺼리는 일이 있으나 경연관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경연관들이 현종에게 너무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8년 9월 30일 부교리 朴世堂, 부수찬 吳始復 등이 현종에게 차자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46) 肅宗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옥당을 불러 강독을 병행한다하여 당시 영의정 金錫胄에게 지적 받은 일이 있다. 『肅宗實錄』 肅宗 8年 10月 28日(辛丑) 卷13. 冊38. p.606.
47) 『顯宗改修實錄』 顯宗. 7年 12月 26日(壬申) 卷16. 冊37. p.535.
48) 『顯宗實錄』 顯宗. 8年 7月 15日(丁巳) 卷14. 冊36. p.559.
49) 『顯宗實錄』 顯宗. 8年 9月 18日(己未) 卷14. 冊36. p.565.

“전하께서는 重臣을 몰아치기를 중 부리듯이 하고 대각을 어리숙하게 보기를 어린아이 보듯 하고 계십니다. 또 듣기에 거북하고 오만한 말을 경연의 신하에게 하시는데, 옛날의 무도한 임금도 말이 신중하지 못하기가 아마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어찌 전하에게 이런 잘못된 거조가 있을 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신은 몹시 분하게 여깁니다.”⁵⁰⁾

이와 같이 경연관들은 현종이 중신을 중 부리 듯하고, 막말하는 태도가 듣기 거북하여 분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국왕에게 분하다고 표현한 경연관들의 태도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그런 경연관들이 있으므로 해서 현종이 독서에 더 싫증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계속해서 경연을 실시하지 않은 현종에게 장령 최문식이 차자를 올려 경연재개를 부탁하였다. 그 내용에서 오랫동안 경연을 폐한 사유가 보인다. 날씨가 춥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경연을 열지 못했으니 이제는 날씨가 풀렸으므로 경연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현종은 경연재개를 승낙하였다.⁵¹⁾ 그래도 실시하지 않자 9년(1668) 2월 9일 집의 심유, 3월 12일 승지 洪萬容 등이 경연재개를 건의했지만 여전히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경연은 열지 않았다.

10년(1669)부터 경연은 1회도 없었으며, 소대만 10년에 9회 11년, 1회, 14년 1회로 독서를 마쳤다. 이와 같이 현종은 계속된 질환으로 국정은 물론이고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들었다. 재위 초년부터 눈병에 시달려 15년 동안 고생했으며, 위가 좋지 않아 식욕도 떨어지고, 인후증세, 두통, 오한 등에 시달렸다. 매일 뜸과 침에 의하여 종기나 습창을 달고 살았다. 결국은 치통, 복통, 요통에 시달리고 고열 등으로 인해 15년(1674) 8월 18일 창덕궁 齋廬에서 3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면서 독서는 더 이상 없었다.

5. 結 言

조선조 제18대 왕 현종의 재위 15년 동안 경연제도에 따른 일정별 독서행태 및 讀書沮害要因에 대해서 조사하여 그의 독서이력을 밝혔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경연 제도는 조강, 주강, 석강으로 정하였으며, 수시로 강관을 불러 독서토론할 수 있도록 소대를 마련하였다. 첫 경연에서 독서할 책은 주강 『中庸』으로 선정하였다.
- 2) 즉위년에 가장 먼저 읽은 책은 주강에서 『中庸』이었다. 1년에는 『中庸』 읽기를 중단하고 주강은 『大學衍義』, 석강은 『通鑑』으로 교체하였다. 5년 9월 26일까지 『大學衍義』를 읽고 주로 『通鑑』에 집중 독서하였다. 『通鑑』은 6년 9월까지 읽었으며, 그 후 중단한 『中庸』을 다시 읽었다. 6년 5월 이경석의 추천으로 송준길 등과 『心經』을 읽기 시작하여 10년 5월까지 읽었다. 6년 10월 30일 하루 『大學衍義』를 읽었으며, 11년 11월부터는 『綱目』을 14년까지 읽었으나

50) 『顯宗實錄』 顯宗. 8年 9月 30日(辛未) 卷14. 冊36. p.566.

51) 『顯宗實錄』 顯宗. 9年 1月 12日(辛亥) 卷14. 冊36. p.570.

- 기록상으로는 11년 11월 11일, 14년 2월 27일 등 2회가 전부다.
- 3) 독서장소로는 즉위년 夜對廳(齋殿), 1년 興政堂, 2년에는 資政殿, 熙政堂, 5년 宣政殿, 熙政堂, 養心閣, 6년 熙政堂, 7년 宣政殿, 養心閣, 9년 養心閣, 10년 養心閣 등을 이용하였다.
 - 4) 당시 홍문관의 수장이며, 경연을 책임진 부제학은 俞棨, 金守恒, 趙復陽, 李慶徽, 李慶億, 閔維重, 洪處亮, 曹漢英, 閔鼎重, 李敏迪, 李端相, 金萬基, 李端夏 등이었다. 임기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정도로 수시로 교체되었으며, 재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 5) 재위기간 3강 중 조강은 재위 1년 1회, 석강 3회 밖에 없었으며, 야대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 6) 주장의 회수는 총 26회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보면 즉위년 1회, 1년 7회, 2년 2회, 3년과 4년은 0, 5년 5회, 6년 0, 7년 3회, 8년 0, 9년 8회가 마지막이었으며, 그 이후 15년까지 주장은 없었다. 이 중 가장 많이 독서한 해는 1년과 9년이며, 월별로는 10월 11월이 5회와 10회로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과목은 『中庸』, 『大學衍義』, 『通鑑』 등이었다.
 - 7) 경연 외에 실시한 소대는 1년 6회, 2년 0, 3년 2회, 4년 0, 5년 1회, 6년 8회, 7년 2회, 8년 0, 9년 2회, 10년 9회, 11년 1회, 12년 0, 13년 0, 14년 1회 등 총 32회로 나타났다. 소대에서 읽은 책은 『通鑑』, 『大學衍義』, 『心經』, 『中庸』, 『綱目』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현종이 재위 15년 동안 읽었던 책은 『中庸』, 『大學衍義』, 『通鑑』, 『心經』, 『綱目』 등 총 5책에 불과하다. 이 책 모두 완독한 책이 없다. 이와 같이 현종의 독서력이 가장 저조한 원인은 국내적으로 예론문제, 계속된 가뭄과 기근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재위 초년부터 눈병에 시달려 15년 동안 고생했으며, 위가 좋지 않아 식욕도 떨어지고, 인후증세, 두통, 오한, 치통, 요통 등에 시달렸다. 매일 뜸과 침에 의하여 종기나 습창을 달고 살았다. 이 처럼 질병에 시달린 나머지 독서를 하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承政院日記』.
『經國大典』. 서울: 一志社, 1988.
『增補文獻備考』 영인본. 서울: 명문당, 1985.
『中宗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顯宗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顯宗改修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肅宗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孝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66집(2016. 6).